

## 韓國圖書館界回顧와 展望

—60年代를 보내고 70年代를 맞는 對談—

저무는 '69年과 더불어 60年代를 보내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 있어 60年代는 繁榮을 위한 自覺과 激動, 그리고 進歩의 土臺를 다지는 때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圖書館界는 1956年頃 近代의인 圖書館學이 導入된 以來 15. 6年의 歲月이 흘렀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자라 왔다. 따라서 우리 圖書館界는 우리의 姿勢와 方向조차 미처 가능하지 못하든 初創期의 몇 해(年)를 除하면 60年代는 우리네 歷史의 全部인 것도 事實이라고 하겠다. 또한 우리의 希望과 目標을 向한 몸부림의 全部였다고 생각한다.

그런 意味에서 60年代를 回顧하고, 功過를 反省 整理해 보고 그리고 앞으로 몇날 후에 닥쳐올 70年代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摸索해 보는 것은 大端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編轉者 註)

日時: 1969年 11月 6日 午後 3時

場所: 圖協 事務局 會議室

말씀해 주신분(無順)

- 1) 圖書館界: 姜周鎭(本協會會長)
- 2) 學界: 李春熙(成均館大學校 圖書館學科 教授)
- 3) 出版界: 李環薰(大韓出版文化協會 事務局長)
- 4) 企業界: 李鍾文(鍾根堂製藥株式會社 專務)
- 5) 社會團體: 元昶勳(유네스코 韓國委員會 企劃部長)
- 6) 司會: 崔根滿(本協會 事務局長)

司會: 바쁘신 時間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感謝합니다. 오늘의 主題를 60年代 韓國 圖書館界의 回顧와 70年代의 展望으로 잡아 왔습니다. 本協會가 設立된지 15년이 經過했고 機關誌인 “도협월보”가 創刊된지도 1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60年代의 마지막을 보내는 時期를 擇해서 圖書館界와 出版界의 이모 저모를 回顧해 보고 앞으로 맞는 近代化의 盛熟期가 될 70年代에 圖書館界와 出版界가 어떻게 社會에 寄與해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를 가지고 여러 先生任들을 모시고 좋으신 意見을 나누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우선 60年代에 있어서 圖書館界의 動向이라고 할까요, 그동안 있었던 여러가지 일 중에서 代表的인 일을 먼저 姜會長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姜周鎭: 제가 圖書館界에 직접 관여한지가 6년이 됩니다. 그래서 60年代 全般의인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첫째로 圖書館法과 國會圖書館法의 制定을 들 수 있겠는데,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도서관 事業의 母法인 法의 制定 作業이 60대에 이루어 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60年代 후반기에 들어서서 圖書館人들의 새로운 自覺이라고나 할까요, 새로운 使命이 論議되고 있는 點이라 하겠습니

다. 즉 보다 더 效率의인 奉仕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氣運이라 하겠습니다. 셋째는 書誌作業이 굉장히 활발하게 展開되고 있는 點입니다. 學術雜誌記事索引과 같은 各種 索引 作業이 여러 圖書館의 共同 作業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공동 作業을 통해서 圖書館人들 스스로가 새로운 사명을 自覺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韓國 科學技術情報센터의 획기적인 발전이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각 분야별 書目의 編纂과 韓國史 및 韓國資料에 對한 整理作業이 활발히 推進되고 있다는 點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司會: 그러던 60年代에 있어서 圖書館學界의 動向은 어떠했는지 李春熙 教授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春熙: 姜會長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年代에 있어서 圖書館法의 制定이 學界에도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法이 制定되기 이전에는 講習이나 workshop의 形態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法이 制定된 후에는 教育도 새로운 樣相을 띄게 되었고, 中央大學校와 成均館大學校에 정규 圖書館學科, 그리고 司書教育院이 開設되었습니다. 아울러 圖書館學 研究 活動이 圖協을 中心으로 活潑히 展開되어 20餘卷의 圖書館學書가 出刊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大學圖書館界라든지 또는 公共圖書館界 등 館界 여러 分野에서 스스로 科學的인 分析과 反省을 가지고 하는 作業 등은 두드러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書誌事業會의 發足은 館界는 물론 一般 學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서울에서 열린 國際會議는 60年代 館界의 가장 큰 成果라고 생각합니다. 이 會議도 우리 나라 圖書館界가 國際的으로 地位가 向上되고 우리의 能力이 國際 社會로 展을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됨은 물론 우방국가 간에 技術 및 人事交流 등의 길이 마련되어 館界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司會: 지금까지 圖書館界를 살펴 왔습니다만 60年代에 있어서 出版界는 어떠한지 出協 事務局長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璟薰: 한 10年 동안을 總整理 한다고 하면 美國에서도 出版革命이란 말을 씁니다만 出版革命이란 말은, 적어도 人口가 폭발적으로 증가된다, 教育人口가 늘었다, 또 出版의 製作 技術이 變革됨으로서 出版 媒體가 대량 증가 하고 있는 趨勢를 이룸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지난 10년간을 살펴 본다고 하면 政治 情勢의 불안정 등으로 해서 良書의 出版 보다는 學校 教育을 相對로 한 學習 圖書을 出版하는데 힘 썼기 때문에 圖書館界가 要望하는 社會 教育에 공헌할 良書 出版에 多少 障害을 가져온 것이 事實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電波 Media나 하는 모든 Mass Communication의 팽창과 더불어 우리 出版界도 이에 副應하여 週刊誌 불이 일어났든지 하는 것이 特記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장본, 廉價本하는 포켓북이 우리 나라에서 大衆化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出版界의 60年代를 한 마디로 表現하자면 어려운 파도기였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司會: 지금까지 圖書館界와 出版界의 60年代를 回顧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分野에 대해서 유네스코 韓國委員會가 그간 기여한 바는 무엇이었던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元 部長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元昶勳: 여러 先生任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중사하고 있는 유네스코의 立場에서 본다면 60年代에 있어서의 Topic은 KORSTIC의 事業을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즉 61년에 創設된 이래 한 디케이드를 통한 發展을 거듭하여 科學技術情報文獻을 손쉽고 迅速 正確하게 奉仕할 수 있게 體制를 갖추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0年代의 初創期에 Social Science Documentation Center라는 研究室이 延世大學校內에 設置 되었으나 현상유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60年代가 專門化의 傾向으로 發足되어간 趨勢였

다고 생각하는데 유네스코의 立場에서 본다면 KORS-TIC을 自然科學面에서 成功을 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社會科學面에 있어서는 不足한 面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昨年 年末에 國際間에 社會科學 情報交流 問題에 대해서 具體的인 論議가 된 일이 있습니다만 科學 技術이 날로 발달되고 있는 現時點에서 볼때 社會科學問題는 Social Implication으로 생각할 때 重要한 分野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司會: 지금까지 말씀하신 외에 유네스코의 周旋으로 많은 司書職이 해외여행을 한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元昶勳: 유네스코를 通해서 外國에 나간 圖書館人이 여러 분 제십니다만 우선 세분이 생각 납니다. 閔泳珪 先生님과 金世翹 先生님 千惠鳳 先生님 등인데요, 千先生님은 古文書 保存 分野를 위해 다녀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機會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유네스코 本部에서는 Library Bulletin, Abstract Service, Index Translation 등을 내고 있습니다만 圖書館에서도 世界 各國에 있는 圖書館의 Directory를 내면 世界의 圖書館들이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Information을 提供하는 것으로 꼭 뜻있는 出版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0年代 初에 유네스코에서 國際的인 協定 두가지를 낸 것이 있는데 우리 나라는 아직 정식으로 加入 되지는 않았으나 業務는 보고 있습니다. 즉 國際間에 圖書交換計劃協定(International Exchange Publication)과 政府刊行물과 Documentation을 교환 하는 協定으로 우리 나라도 곧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봅니다.

李鍾文: 60年代의 韓國圖書館界 回顧와 70年代를 展望해 보는 자리에서 유네스코 活動에 對해서 確認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50年代 末부터 60年代 初期까지를 우리 나라에 Modern Library Service에 관한 概念이 도입되면서 韓國에 圖書館 事業이 定着을 始作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50年代에 나온 Unesco



(座談會 光景)

Publication 은 57년부터 62년頃까지 韓國 圖書館 運動에 參與한 사람들이 성경책 처럼 잊게 되었고 또 Unesco 에서 나온 National Bibliography 에 관한 책들은 日本式으로 생각하든 우리 圖書館人들에게 National Bibliography 의 作成法을 分明하게 알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Unesco Project 에 의해서 圖書館界에 交換圖書를 많이 들여 오는 등 Unesco 韓國委員會가 一般學界는 물론 특히 初創期的의 우리 나라 圖書館界에 寄與한 功績은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司會 : 感謝합니다. 亦是 60年代를 한 마디로 要約하면 우리 나라 圖書館 事業과 圖書館學이 定着하여 發展의 土藪를 마련한 時期라고 할 수 있겠고, 이를 위해서 유네스코 韓國委員會가 기여한 業績이 多大하다고 하겠습니까. 다음은 이자리에 참석하신 先生님들께서 모두 海外旅行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機會에 우선 가까운 日本과 우리 나라의 館界 및 出版文化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李璟薰 : 우선 日本은 出版物의 流通 機構가 잘 짜여져 있는데 반해 우리 나라는 6·25以後 流通機構가 崩壞되어 아직도 再起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出版 미디어를 통하여 國民에게 文化를 普及하는 使命을 가진 出版界가 그 使命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습니까.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現在 아시아 지역의 出版現況을 보면 지난 10年間 40%가 增加되었고, 世界的으로는 約 30%가 增加된 趨勢입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나라는 約 4倍가 增加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출판미디어가 제 구실을 하느냐가 우리 出版界의 當면 課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즉 日本은 出版 매체가 잘 정리되어 있고 우리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라는데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司會 : 出協의 李 局長님께서 日本과 우리 나라의 出版界에 대한 差異點을 말씀해 주셨는데 圖書館界는 어떻겠습니까?

姜周鎭 :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첫째 우리는 解放 後의 混雜이 수습되기도 전에 6·25를 겪어야 하는 Blank 가 있었고, 둘째로는 日本은 敗戰後 美國의 強力한 協助가 있었습니다. 즉 효과적인 국립도서관제도의 확립 같은 것이 예가 되겠습니까. 셋째는 日本은 公共圖書館의 發展이 현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産業圖書館의 發展은 刮目할 만한 발전을 하고 또 이는 日本의 産業發展에 要因이기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出版物이 우리 나라의 約 10배나 되고 量的으로는 비교가 안된다고 봅니다. 또 論文의 生産量이 우리의 10 배이고 이런 것을 뒷 받침하는 圖書館의 機能은 우리 나라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圖書館 教育에 있어서 만은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우리가 앞서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司會 :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는 15年間이란 空白 期間이 있었던 반면 日本은 쉬지 않고 發展하여 公共圖書館은 물론 産業 및 技術開發을 위한 特殊圖書館이 많이 發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도시바 전기회사의 연구소를 잠깐 둘러 보았으나 1個 會社에 研究職員이 1,200名이나 되고 이들을 돕기 위해 도서관에 46名이 되는 專門職이 있더군요, 그리고 圖書館 豫算이 運營費를 제외하고 2千萬元이라고 하더군요. 이것만 보아도 사람들이 기술개발과 研究者를 위한 관심과 뒷 받침에 얼마나 크게 주력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고 우리와의 거리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도 전체 圖書館人들이 一心團結하고 行政을 擔當한 고위층에서 보다 더 충분한 이해와 강력한 뒷 받침만 수반된다면 日本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그다지 失望의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와 같은 우리의 落後 혹은 우리의 圖書館界와 出版界가 바람직하게 발전하지 못한 阻害要因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姜周鎭氏)



(李春熙氏)



(李鍾文氏)



(李璟薰氏)

李春熙: 于先 圖書館學界의 發展에 沮害要因이라든  
亦是 豫算問題라고 보겠읍니다. 圖書館學科를 卒業하  
고 進出 할 수 있는 곳이 現在 圖書館만으로 限定 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다른 學科를 나온 사람들과 報酬면  
에서 비교가 안되는 實情입니다. 따라서 圖書館學科를  
持望하는 學生의 質이 낮아지고 아울러 希望을 불어 넣  
어 주지 못하는 것이 事實입니다. 하루 속히 圖書館 스  
스로가 發展을 해서 豫算도 많아지고 職員의 대우도 좋  
아지면 가르치는 저희들이나 배우는 學生들이 모두 活  
氣 있게 研究하여 發展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司會: 李鍾文 先生님께서는 圖書館界에 중사하시다  
가 現在는 產業界에서 活躍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外部에서 보신 圖書館界 發展의 沮害要因이 어디에 있  
었다고 보시는지요.

李鍾文: 제가 생각하기에는 社會라는 것이 政治, 經濟  
文化 等 모든 分野의 綜合的인 現像이 社會의 與件을 組  
成하는 것이고, 그 與件의 社會的인 또는 現實的인 必要  
에 의해서 圖書館 制度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읍니  
까? 그런데 오늘 날 社會가 바라고 있는 現實的인 要求  
와 圖書館인들이 가지고 있는 觀念的인 理想하고가 잘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館界에 있으면서  
圖書館法 制定을 推進한 사람입니다만 그 때는 現實的인  
要求가 圖書館法이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切實한  
갈망이었고 또 司書教師 訓練이라든지 하는 것이 現實  
的인 要求라는 것으로 確信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을 무릅  
쓰고, 현재는 圖書館法이 잘되었네 못되었네 합니다만  
그 當時는 圖書館人이나 社會的으로 現實的인 要求의 전  
부였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現在  
제가 있는 會社에서 자주 사원 모임을 해 봅니다만 예  
를 들어 경제학과를 우수한 成績으로 卒業한 사람에게  
우리 나라의 經濟 成長率이라든가 物價指數를 물으면  
잘 모릅니다. 말하자면 實際的인 教育이 잘 안된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圖書館界에서도 李 教授  
님도 계십니다만 너무 觀念的인 면으로만 치우쳐서 美  
國이나 日本 같은 나라의 제도를 그리면서 나아가면 현  
실적인 요청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教育이 되지 않겠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웬만한 기업체에서는  
自體的인 必要에 따라 特殊 分野의 教育을 시키기는 하  
지만 一般的인 教養教育은 못하지 않읍니까? 반면에  
大學을 나왔다고는 하지만 人間教育 내지는 競爭社會에  
서 個人이 살아남을 수 있는 智識과 一般的인 教育이 體  
系的으로 되 있지 않은 것 같드군요, 圖書館學界가 앞  
으로 現實的인 要求에 적합한 教育을 실시하고 졸업생들  
이 진출 할 수 있는 分野를 보다 넓게 개척 하려면 우  
선 교육계와 산업계를 연결시키는 方法이 모색되어, 줄

업생들을 산업계로 실  
습을 내 보내서, 圖書  
館 교육을 받은 사람  
들과 연결을 하면 어  
떤 이점이 있다는 것  
을 모르는 산업계를 파  
고 들어가도록 하는 것  
이 하나의 方法일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圖書館이 社  
會의 요청에 응해야 도  
서관이 발전할 수 있  
는 것인지 社會가 도  
서관을 要請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도서관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  
다고 보겠읍니다.



(元 昶 勳氏)

司會: 感謝합니다.  
다음은 70年代의 展望  
에 대해서 우선 Unesco  
에 있어서 도서관  
계와 출판계에 관계되  
는 Plan 에 대해서 元  
部長님께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崔 根 滿氏)

元昶勳: 70年代라고 해서 特別한 Plan 을 Unesco가  
갖고 있지는 않읍니다만 여러 先生님들께서도 잘 아시  
는 바와 같이 "Multi Disciplinary Cooperation"을 부  
르시고 있습니다. 즉 圖書館이 圖書館만으로 發展 할  
수 없고, 圖書館이 出版界나 地域社會와 link 를 하며,  
國內에 머물러 있는 圖書館이 아니라 海外로 어떻게 進  
출할 것인가, 또 產業界와는 어떻게 link 할 수 있는 것  
인가, 그리고 教育機關이 보다 더 바람직하게 圖書館과  
直結될 수 있는 것인가의 方向을 摸索하는 것이 強調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趨勢로 봐서 70年代는 어떤  
分野이든간에 相互 協助가 強力하게 이루어 저야만 살  
아 나아갈 수 있고 發展되어 나갈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Unesco에서도 어떻게 하면 圖書館界와  
出版界가 보다 부드럽고 긴밀하게 link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큰 課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가 後進國을 벗어나 重鎮國에서도 앞을 달리는 나  
라가 되자면 科學的인 data 를 精確하게 作成하는 것이  
先進 隊列에 발 맞추어 나가는 한 단계라고 생각합니  
다. 특히 60年代의 末인 今年에 國際會議를 開催하여  
큰 成果를 올렸고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아시아에  
있어 leader 의 位置를 세웠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相互 協助하여 國際交流 및 國家間的 協力에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司會：出版界의 발전에 阻害要因은 어떤 것인지 李局長님께서 말씀 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李璟燾：出版界의 阻害要因이라고 하면 根源의으로 文化 全般에 걸치는 問題입니다만 出版界 發展의 出口가 元 先生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圖書館界와의 link를 效果의으로 하는 것이 한 첩경이라고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해 오면서도 실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現實을 좀 더 깊이 분석하고 연구해서 發展의 길로 一步一步 닦아 갈 수 있도록 相互 協助하는 길을 摸索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日本에서는 學校圖書館協議會와 兒童圖書出版業者들이 유대가 잘 이루어 지고 또 學校圖書館法을 制定할 때 全 出版界가 측면에서 自己 일 같이 協助했다는 등의 뒷이야기는 實例가 되겠습니다만 教育行政家라든지, 一線 教育者와의 讀書指導問題라든지, 하여간 出版과 直結된 問題들이 相互 發展하는 데에 바른 길을 찾아 實踐 段階로 밀고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司會：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60年代의 이모 저모 回顧한 것을 中心으로 70年代에 대한 우리의 설계라고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姜會長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姜周鎭：70年代는 出版業者들이 圖書館을 찾아 와서 圖書館長하고 交際하는 時期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60年代가 XEROX 時代라고 한다면 하루 빨리 XEROX 時代를 극복하고 Computer 時代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셋째는 어느 意味로 보든지 圖書館 政策의 再樹立, 圖書館 制度의 改編 등을 위해서 根本的으로 圖書館法의 改正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거리에 있는 私設圖書室 즉 學生들이 工夫할 방이 없어서 돈을 받고 工夫방을 빌려 주는 韓國의인 羞恥스러운 現實을 追放해야 할 것입니다. 그외는 아직도 基本的인 問題들입니다만 圖書購入費를 비롯한 豫算의 確保 問題라든지, 圖書館 教育의 再檢討, 有能한 司書職의 確保, 司書 資格의 向上, 그리고 밖으로는 學術, 教育界와의 link 라든지 여러가지 問題가 많습니다. 그리고 60年代에 겨우 國際關係에 한발을 들여 놓은 우리가 70年代에는 정말 跳躍의 계기가 되어야 하겠고, 國際社會와 융합하는 圖書館界를 이룩하는 것이 70年代의 課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司會：다음은 李鍾文 先生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李鍾文：앞에서도 말씀 드렸었습니다만 圖書館이 社會의 現實에 의한 產物이고 또한 圖書館 自體가 綜合的인 性格을 갖고 있으니 만치 大學이라든지, 大學院 其他 研究職에 從事하는 人口가 美國은 30萬名이 조금 넘

고, 日本이 20萬名으로 따라오고 있고, 독일이 20萬名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約 1萬名이 조금 넘는 程度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生産해 내는 研究業績이라든지 또는 產業에 應用 할 수 있는 實績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讀書問題를 놓고 보드라도 우리가 重鎮國이라고 합시다만 日本이 재작년도에 國民所得 800弗線을 넘어섰고 現在는 1,000弗線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弗이 못되는 形便아닙니까? 적어도 400弗線은 넘어야 重鎮國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現實은 200弗이 未達인 形便에서 거리에는 自家用이 확차 있습니다. 이런 社會가 發展하면 할수록 市民의 觀心事가 밖으로 뛰어 나가자 人間의 內部를 들여다보고 그 깊이를 재는 姿勢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즉 外界의 變化가 急激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內部로 움추리고 있던 意識이 高速道路가 생기고, 交通手段이 發達함에 따라 자주 밖으로 뛰쳐 나가고 새로운 娛樂를 찾아 나아가게 마련이 아니겠어요, 이런 現實에 있어서의 Research activity에 증사하는 사람이 極히 적고 따라서 專門的인 圖書館 奉仕는 現在 몇개의 綜合센터적인 施設로서 充當하고 各企業은 自體의 發展과 企業의 生存을 위해서 앞에서 日本의 도시바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나라의 產業도 그런 方向으로 나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見地에서 볼 때 우리의 產業界에서도 讀書와 研究를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競爭社會를 이기느냐 하는 How to do의 問題에 關한 讀書가 時急히 要請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Librarian 들의 專門性을 상대방, 즉 社會의 現實的인 要求와를 어떻게 link 시키느냐하는 point 를 찾아내는 것이 急先務가 되고, 專門的인 讀書人에 대한 奉仕가 우리의 課題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둘째로는 一般 教養問題인데요 요지음 사회구조가 아주 인색하고 Yankeeism 化 해 가며 競爭은 날로 심하고 눈부시게 變化해 가는 社會 現實에서 어떻게 Human Relation 을 유지하느냐 하는 일이 問題가 됩니다. 따라서 一般 大衆에게 讀書問題가 講究되어야 하겠는데 社會에는 섹스라든가 호머 섹스 등에 關心이 쏠리고 Humanism 에 對해서는 점점 관심이 멀어져 간다면 우리의 固有한 韓國의인 精神을 어떻게 유지시키며 어떻게 그 方向으로 끌고 나아가야 할 것이냐 했을 때 社會學的인 면에서 圖書館學과 社會學이 link 를 해서 이와 같은 現實을 개척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70年代의 圖書館 奉仕의 展望은 Unesco의 元 部長任도 말씀해 하셨습니다만 “multi disciplinary Cooperation 즉 綜合的이고 相互 直結된 協助와 관련된 현상으로 이끌어 나가자 않고 圖書館 奉仕만을 생각하고 나아가면 急進的으로 變貌해가는 社會에서 우리들 스

스르가 멀어져 갈수 밖에 없지 않으나는 말입니다. 그러나 圖書館界에서 教育을 擔當하는 教育分野는 물론이고 實務를 擔當하는 圖書館人들도 자기 分野 이외에 社會와 연관되는 하나씩의 專門分野를 가지고 自己의 圖書館의 專門技術이 새로운 分野에 어떻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활발히 開拓해 나아가는 運動을 出發시켜서 圖書館人이 社會와 밀접한 봉사를 創造해 낼 수 있고 社會와 밀접하게 결부되어서 우리들의 圖書館 事業의 폭을 넓혀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司會 : 다음은 70年代의 圖書館學 教育에 對한 展望을 李 教授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春熙 : 現在 제가 教育界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圖書館 教育은 어떤 圖書館에서도 일 할 수 있는 극히 一般의인 教育만을 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基礎의인 教育의 領域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런 教育을 脫皮하기 위해서 美國에서는 大學院 中心의 教育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急速度로 發展해 가는 社會의 現實의인 要求와 産業에 호응하기 위해 우리 圖書館 教育이 現在의 상태에서 탈피하여 정말 專門의인 圖書館人을 배출하는 教育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70年代의 目標가 되어 할 줄 믿읍니다. 또 한가지 添言하고 싶은 것은 지난 國際會議의 主題가 國家發展과 圖書館의 役割이였지 않읍니까? 그 뒤에 우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代하여 많은 생각과 의견 교환을 했읍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圖書館法이 改定되고, 國家의 圖書館發展 長期計劃이 수립되고 실천에 옮겨지는 계기가 70年代에는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重要한 課題라고 생각합니다.

司會 : 다음은 출판계의 전망과 정부나 國民에게 바라는 요망사항이 무엇인지 李 局長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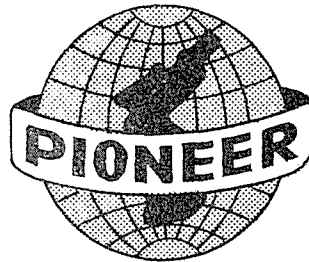
李璟薰 : 出版界가 바라는 것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모든 知識을 國民이 고루 가질 수 있도록 普及하는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래야 출판계도 꽃을 피울 수 있리라 믿는데요, 그러나 知識을 國民이 고루 共有하게 하는 것은 出版界만의 使命이 아니고 圖書館界, 教育界가 모두 協力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出版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 讀書指導가 徹底히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이 자라서 좋은 讀書人도 되고, 筆者도 되어서 좋은 著書가 나오고 하여 出版界가 活潑해 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司會 :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圖書館界가 發展하기 위해서는 政府가 圖書館 開發을 위한 長期計劃을 一括해서 實踐에 옮길 수 있는 行政의인 支援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圖書購入費라든가 公共圖書館 시설이라든가 하는 必要한 豫算이 60年代보다 70年代에는 集約的인 支援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圖書館法 改正 등 여러가지 制度上의 모순을 是正하는 것 등 많읍니다. 그리고 國民들은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사회를 이겨 나아갈 수 있는 知識의 습득과 人間形成을 위해 圖書館을 보다 더 많이 利用하는 生活 태도를 갖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 선생님들 긴 時間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1970

海外學術雜誌 予約案内

- ◎ 海外 學術雜誌 預約購讀에 관한 모든일은 보다 빠르고 正確하게 서비스 하고있는 우리에게 맡겨 주십시오.
- ◎ 海外 學術雜誌 預約購讀에 관한限 世界의 어느 出版社의 刊行物이나 貴下가 願하는 대로 손쉽게 處理됩니다.
- ◎ 우리는 定期刊行部와 單行本部를 設置하고 有能한 職員들로 構成하여 언제나 顧客들의 注文에 對備하고 있습니다.
- ◎ 우리는 顧客들로부터 들어오는 어떠한 問談에 對하여서도 빠른 情報를 提供 할수 있습니다.
- ◎ 萬一 貴下께서 아직도 폐사와 關聯을 맺지 않고 계시다면 곧 書信이나 電話로 連絡하여 주십시오. 모든 條件과 情報를 提供하여 드리겠습니다.
- ◎ 위에 말씀드린 以外の 일이라도 언제나 協助하여 드릴것을 確信합니다.



파이오니아書籍  
유네스코한국위원회쿠폡대행사

서울特別市鍾路區鍾路3街130番地  
서울國際郵遞局私書函3553號  
電話 (74) 4 8 5 5 · (75) 4 1 5 5